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관탄핵·北원전 등 與野, 현안 정쟁 예고

막 오르는 2월 국회

민주당,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이낙연 “탄핵소추 인정 하기로”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정권을 위한 탄핵’ 취지로 비판

2월 임시국회 출발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정쟁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개의식이 열리는 첫날인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으로 법관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법 적폐’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174석)의 석 상황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가결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 움직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정권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며 민주당이 ‘정권을 위한 탄핵을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 압박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송금을 밝혔듯 특검을 실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제3지대’ 금태섭·조정훈,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국민의힘 ‘양강구도’ 깨져 금태섭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이 엄중한 시기를 맡길 수 없어” 조정훈 “현실 보듬기·타개책 마련 ‘누구나’ 존엄 할 수 있는 길 개척”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1일 각각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가 아닌 제3지대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공연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며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 힘을 다 바치겠다”며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 원 상당 지원 ▲청년에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지급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시민 생애 첫 전세 마련 지원 ▲서울인권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는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선언 회견에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위)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을 약속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출마 기자회견에서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는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선언 회견에서

“4·7 보궐선거는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 선거,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거도 아니다.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복구시키는 선거이자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기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이른바 양강구도 중심이던 4·7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비판한 발언인 셈이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행정은 현실 보듬기와 동시에 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전환의 타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서울에는)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 앞에 와있는 미래를 알아차리고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모두들 대전환을 얘기하지만, 원조 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다. 시민 한분 한분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생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 전 의원은 무소속인 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조 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완주를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양강구도로 굳어진 구도에서 타 후보에 비해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제3지대 후보가 힘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영훈 기자

농식품부, 화훼소비 활성화·농가 지원방안 추진

21개 기관서 꽃 300만송이 집중구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영난을 겪는 화훼 농가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훼류 거래량과 가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에도 작년 12월까지 대부분 안정세를 보였으나, 일부 품목은 가격 등 록 폭이 커져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반영했다. 29일 기준 서울 서초구 양재화훼공판장에서 팔리는 안개꽃 1단 가격은 3681원으로 약 보름 전인 지난 15일 5990원에서 큰 폭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인 9005원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1월 하루 평균 거래량 역시 29일 기준 10만단으로 평년 10만7000단이나 지난해 11만9000단에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위축된 소비심리와 비대면 졸업식 등으로 꽃 선물 수요가 줄어 2월 이후 화훼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속·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21개 기관과 함께 전년보다 많은 300만 송이를 집중 구매하는 등 화훼 소비 유도에 나선다. 지자체별로 지역 내 생산되는 화훼류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

별로 추진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등과 협조해 범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화훼 소비 부진으로 산지 폐기나 출하 포기 등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경매 수수료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에서 6.0%로 1%포인트 인하하고, 화훼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도 연말까지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 이내 용자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직무능력기반 경력개발 추천해 드려요”

산업인력공단, 오늘부터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월1일부터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 서비스는 개인이 이수한 교육·훈련·자격·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입력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무중

심 경력개발 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www.ncs.go.kr) 마이페이지의 ‘통합직무능력 포트폴리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 NCS 빅데이터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NCS 누리집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현장 안전확보에 3년간 1.4조 투입

안전보건공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나 기구 교체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1일

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 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

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https://anto.kosha.or.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기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